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여여하게 해내는 마음 우주를 살릴 수도…

마음의 문 활짝 열려면…

문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의 심봉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내 안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의 근본을 발견하고 싶고, 저의 근본과 저 사이의 칸막이를 활짝 젖히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 주인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허공이라 하면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를 텐데 아무리 비어서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 같다 할지라도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크고 작다, 짜고 싱겁다 하고 사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생각,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 없는 생각을 해내는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가 생기면 그냥 나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예를 들어 누가 찾으면, '여보!' 하고 부르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든가 하면서 찾는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그 자체가,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소립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갈 때에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내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친구로서 여여하게 해내고, 거기서 그냥 상대방 사람의 용도를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을 벌써 익힌 사람이라 그냥그냥 여여하게 나오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놔라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요. 한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오로지 놓아라, 이러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들고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내듯이 스스로 들어오고 스스로 또 내는 거죠. 그렇게 여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요. 바로 여러분이 공했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종점도 없는 거를 알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로 한 군데서, 한 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온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젖힐 칸막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내가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려면 심봉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서 자꾸 입력을 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을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차 그렇게 하다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녹여야 하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녹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녹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지요?

답 팔만대장경이라는 광대한 양의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걸 줄여서 만든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더 줄인다면 불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에요. 천차만별의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한판 치고 울든, 한판 치고 웃든, 그냥 시원하게 좀 그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우친다, 성불한다, 견성한다 뭐 이런 건 다 이름이에요.

사람이 죽어가거나 할 때, 살 양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리려고 바들바들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개미굴이나 또는 개구리, 뱀 소굴, 벌레들 소굴이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했다면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듯이, 아마 그네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온통 난리가 나죠. 난리를 벌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것과 똑 같은지 몰라요. 다리 부러진 것도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개미들이 그럽디다. 개구리도 창자가 그냥 쭉 빼어져 나왔는데도 그냥 업고 가고 말입니다. 똑 같애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러니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가 어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마음을 걸러서 중심을 잘 세워서 중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두면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세생생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로서 등장할 수 있다, 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거를 보면

참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놓아야

너무 울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이런 건가,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한없이 물 흐르는 걸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이 저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을 어찌 칼로 똑 끊으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변동이 되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음을 말로 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끊으리까 이겁니다. 그때서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더불어 같이 녹이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말을 잘못하는 거는 좀 더 다스리면서, 잘하는 것은 감사하게 다스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주인공에 감사하고 잘못되는 거는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놔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죠.

첫째, 위로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낳아놓은 2세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조상, 나, 자식 삼대가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상 세계, 중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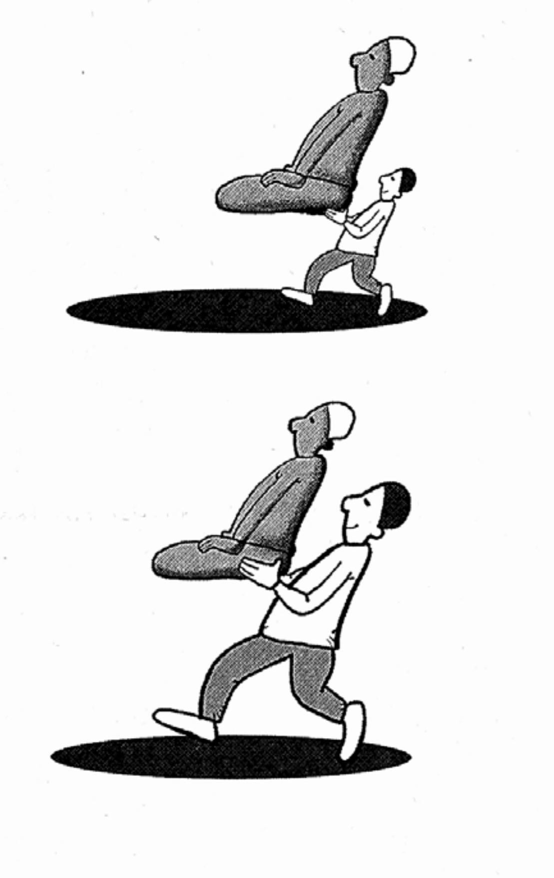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 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 세계에서 마음을 따라서 체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 세계로 떨어뜨리고 상 세계로 올리고 중 세계에 그냥 남는 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건도 그렇듯이, 종자들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 없는 세월을 중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저장시킨 모든 욕심이,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하던 의식들이, 입력된 내용들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끊으려고 애쓰고 끊지 못해서 애쓰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롭기만 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구정물을 새물로 바꾸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일 뿐이다. 나를 가르치려고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밝게 나아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들을 나오는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놓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로 화하여 내 그릇을 더욱 넓혀나가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 끊는다 안 끊는다는 생각조차도 그 자리에 되 맡겨 놓아야만이 훌쩍 뛰어넘는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착실한 사람이 죽으면

문 스님의 자비심에 감사드리며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환상에 속지 않고 걸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함이 없이 하는 도리는 모르지만 심성이 착하고 진실한 사람은 죽어서 걸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도 가난해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어도 마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의 그대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느 공부한 스님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해 둡시다.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분이, 말하자면 그 사람을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아주 깍듯하게는 하는데 융통성은 없었어요. 좀 더 지혜가 있고 그러면 좋을 것을 말입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모든, 우주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되는 게 없는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그게 본래 전부 있기 때문에, 단계 단계가 인간에게도 다 주어져 있고 이 지구에도 주어져 있고, 어떠한 물체든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별성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전체 통신이 가능하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남한테 있는 그걸 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나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예요. 왜 상대를 봅니까? 여러분이 그것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만날 그 그릇에 엎어져서 그 그릇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말고 안에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생산해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좀 더 다듬어서 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 그릇이 쪽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으라고 해도 말입니다. 다시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 용광로에만 넣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되돌리면 에너지로 화해

겁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는데,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텐데, 생산하는 것은 나중이라 해도 일단 자꾸 넣어야 될 텐데도 뭐 돌아볼 게 있고 남의 잘못 볼 틈이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서 '아, 그때는 이렇더니 새로이 나오는구나.' 하고 달리 보이는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만 착하다 그래서 너무 착한 일만 한답시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도 "너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다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일임하고 정도에 넘치지 않게 잘 판단을 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중생들에 미안한 생각이…

문 저는 고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관하고 지켜보라 하시지만 눈이나 다리가 아파 오면 어떤 땐 제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몸 안의 중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 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 주인공의 심부름이지 하면서도 내 욕심이라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떤 지혜로운 맘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지표 삼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답 사대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똥이 마려워서 변소에 가면서 '내가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없이 화장실로 가서 그냥 시원하게 눠 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한데 합쳐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잘 저어서 강을 건너야지 이러는 것도 잔소립니다. 면경을 잘 닦아서 먼지 앉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잔소리입니다. 망상이니 아니니 정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게 다.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내기 이전은 항시 좋고 나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엉망진창으로 입력이 되어진 그 마음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중생의 생명의 의식들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불안하게도 나오고 욕심스럽게도 나오는 거를 잘 다스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굴려서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기 마음의 선장에 한마음으로 따라줄 때까지 건지라 이겁니다. 항상 둘 아니게 관하라 이겁니다.

내 의식에 입력돼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다시 놓아야 하는 데도, 잘못되지 않을까, 나쁘게 되지 않을까 집착하고 끄달리고 삽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그 '나'가 진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 가는 진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을 지어서 더 괴롭게 만들어서 활기차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이든 염려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다시 그 자리에 굴려놓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끊어트리지 않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근본에 맡겨놓지 않고 이리저리 걱정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을 공부재료로 삼아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실천행을 함이 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녹이는지…

문 스님 법문집을 매일 보면서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들의 장애가 제 탓임을 잘 알면서도 가끔씩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 거짓 나에게 속는구나 싶어 많이 속이 상합니다. 또 아이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가끔씩 다투곤 하는데 화내는 남편 모습이 너무 저를 꼭 닮아서 그것에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녹여야 하는지 울적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님께 글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언제나 건강하시어 저희들 언덕이 되어주시길 항상 발원합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게 힘이 든다고 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봐도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살아 나오는 자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의 길을 걷는다 하는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구르지 않고, 부대끼지 않는다면 발전해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조약돌이 물에 스쳐 흐르는 대로 자꾸자꾸 닳아서 반들반들해져서 동그랗게 된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

☞ 28면으로 계속